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0호 [무제 제25619호] 주제 106(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어머니당의 송고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고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명에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진정 좋은 약수를 더 많이 안겨 주시며 마음에서 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뜻을 성취 받아가시는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서약수공장에 료진기계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은 전달하는 모임이 19일 강서약수공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관세무관,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강서구역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안성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약수공장을 소개하시면서 어머니당의 사랑과 온정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할것이라고 하였다. 드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 큰 믿음에 언제나 심장이 새기고 강연도 정신으로 변신되어나 새로운 혁신창조의 불꽃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자랑찬 로력적취품을 안고 만민마사지제회장에 맺 맺이 들어설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약수공장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이어 경의도론들이 있었다. 드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약수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포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 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민본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심사상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삼고 대중적과학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실비와 자재의 극심화를 총사로 틀어쥐고 생산과 경영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지역자재의 기술력이 최대한 증진되고 활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실비들의 만가등을 철저히 보장하여 일월, 월별, 분기별 약수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약수공장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선물인 약수공장을 소개하시면서 어머니당의 사랑과 온정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할것이라고 하였다. 드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 큰 믿음에 언제나 심장이 새기고 강연도 정신으로 변신되어나 새로운 혁신창조의 불꽃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자랑찬 로력적취품을 안고 만민마사지제회장에 맺 맺이 들어설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약수공장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이어 경의도론들이 있었다. 드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약수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포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 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민본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심사상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삼고 대중적과학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실비와 자재의 극심화를 총사로 틀어쥐고 생산과 경영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네 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에서 명

네 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이 력사적인 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어왔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국력과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조국민영의 일대 전진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진심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경의와 자부심을 안고 민족취대의 경사스러운 대양을 성대히 경축한 분위기를 가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년을 뜻깊게 맞이하였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강회발진을 위하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고 철이어서사오도록 손잡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름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치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름없는 경모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총련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재일동포자녀들의 유혹을 위하여 온갖 육체적상과 피를 다 흘려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신같은 사랑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1957년 4월 조국인민들이 리피피를 출마하고 전후북구 건설을 다그치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공장을 한창 세웠다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총련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세계최대의 효포운동사에 일찍이 없는 사랑의 역사를 펼쳐주시었습니다. 우리들은 잠깐같은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고 끝없는 걱정에 볼भ한 자애로운 아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의 하늘을 우리들이 마음껏 만세를 부르고 고마운 인물을 총련당강의 그날을 영원의 잊을수 없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배려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떠한 이국땅에서 민족교육을 개발할 전진시켜가는 생명수였으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민을 힘있게 떨치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이 세상 제일이신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총련의 해외공민인 크나큰 영애와 긍지스러운 온갖 애국적열정을 다바쳐 민족교육사업의 전진기를 마련할수 있었으며 우리 학교를 일본말 방방곡곡에 밀집하게 일떠세우고 민족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총련의 애국교육을

봄철물고기잡이성과 계속 확대

수산성아래 각지 사업소, 협동조합들에서 물고기잡이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물고기잡이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물고기잡이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물고기잡이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영농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농장

영농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농장. 영농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농장. 영농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농장. 영농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농장.



시 초 나래 치라 만리 마여, 강원도 정신으로!

강국의 성벽이 솟았다

김정곤

마식령 산발을 흘러던고... 신설속의 거인마냥 거창하게 솟아올랐다... 오, 원산군민발전소 언제여!

꿈에도 피라서며... 우리 신악같이 일떠세는 언저... 아득히 펼쳐진 대인공호수... 출렁이는 물에 손을 잠그면...

그리움의 메아리

함영주

수려한 산발... 햇빛 눈부신 산중에... 한층의 그림자 펼쳐져... 원산군민발전소... 아, 가슴가득 차오르는 장군님 생각

발원소마을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도... 《평명》이라 지어주시며... 우리 장군님 그리보시던 찬란한 미래...

포 응!

김철웅

은물결 달려와... 억만금슬로 부시지는 언저우에... 우리 원수님의 활하신 미소 눈부시다...

소문도 없이... 이 기적용 창조한 힘에 대한 생각... 안아보고싶으시다... 눈에 띄고 비에 젖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을 진행하신 52돌에 즈음하여 친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을 진행하신 52돌에 즈음하여 친선모임이 조선인도네시아조선협의회와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19일 대통령 방관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께서네 팔련 함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리수용동지는 19일... 수리아대사관 성원들과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영광관람관 혁명역사기... 대성원 대교보관으로 훌륭히...

동격대원들의 미갈라진 그 손과 손을... 샴으로 비머는 사랑들... 바위들을 베개삼아 폭잠에 들어도...

가장 큰 재부

박성일

불수욕 회한해... 누구나 감탄하며 물어사네... 솔루루 통래기속에... 또 하나 멋쟁이로 일떠선...

이어 - 강원도인민들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로... 이 언저우에서 사랑을 겪으시다... 걱정의 순간... 영광의 순간...

나 는 창 문 을 연 다

전성철

온빛추녀 눈부신 원산군두봉장 구내길... 휴식과 나무에 까치가 울 때면... 때일이 출렁이는 마음으로... 나는 서둘러 창문을 연다...

산간벽지에서 멀리 전선마을에서... 언해연방 들이닥치는 소금운반차... 이밤이면 비적 불꽃으로...

나래 치라 만리 마여, 강원도 정신으로!

박혁

협촌한 최진언산발... 제 뜻따르처럼 가슴에 안고 살아... 그리고 뜨겁고 강직한가... 강원도정신입니다...

《삼덕》 자랑 만복 자랑

함영주

구름위에 높이 솟은 마식령마루에... 전설로 전해지는 장수령을 잇고... 우리 마을 박병감님 교향사랑 활적마다... 선량으로 풀린 샘물이야기...

나래 치라 만리 마여, 강원도 정신으로!

박혁

사람도 산선도... 고귀한 정신에 불타... 남마다 번하고... 시간마다 번천하며...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이 땅...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한 외국 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한 외국 손님들과 재중동포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외의 정을 안고 만경대교향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안겨준 백살장수자의 기쁨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백살 장수자들이 낱이 늘어나는 속... 이 새벽이 첫 동네인 만경당의 할머니가 뻗어낸 생일을 맞이하리라...

앞으로는 최진언마을 집집마다... 전기구들도 뜻뜻하게 놀이아이... 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전기력을 누리며...

가장 큰 재부

박성일

얼마나 황홀한것이냐... 이 푸른 주단우에서 밧구며... 아이들의 희망넘친 모습은... 우리가 만든 책가방에...

나래 치라 만리 마여, 강원도 정신으로!

박혁

사람도 산선도... 고귀한 정신에 불타... 남마다 번하고... 시간마다 번천하며...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이 땅...

태양절 축하 재중조선인 총련합회경축단이 떠나갔다

태양절 축하 재중조선인 총련합회경축단은 19일 평양을 떠나갔다.

해외동포들이 떠나갔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국방문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국제교회 노동조합 대표단과 제2호트 열리야동포전국연합회 대표가...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한 외국 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한 외국 손님들과 재중동포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한없는 그리움, 열화같은 총정의 분출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리

집어가는 봄빛과 함께 신에도 봄이 되기를 바라며 그 옥한 향기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꽃들이 다 활짝 피지 못할 아름다운 꽃들이 그리움과 정열의 대화가 되어 4월의 강산에 넘쳐 흐른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찬바람 불어도 눈이 내리도 언제나 꽃 속에 핀채 있는 만수무근, 화창한 4월을 맞아 이력사의 언덕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꽃바구니를 이루었다.

절세위인들의 통상을 높이 모신 만수무근 언덕의 대들우에 삼가 놓여지는 수현수만의 꽃송이들...

류담리 푸르고 청정한 꽃송이는 머나먼 외진 산중초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너털웃음이 보내오는 꽃송이는 아닌지, 아름다운 꽃송이는 애원하듯 소리 시달려야 할까 만수무근 언덕이 꽃다발을 보내고 있는 신의주시 《꽃바구니》의 사연 깊은 다발은 아닌지...

하나 같이 얼어붙은 무더위와, 절세위인들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뜨거운 마음들이 꽃으로 활짝 피어나 이 땅 어디에 아름다운 화원을 결고 있다. 천만세월 영원한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이

자애로운 어버이들로부터 꽃이 불경히 피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정하고 강요받지 않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과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공화국정권, 무적의 인민군대가 있고 수령님께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주신 우리 인민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도 상상을 초월하여 눈부신 승리를 쫓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의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양의 미소를 환히 지으시고 거연히 서 계시는 만수무근 언덕!

언제나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어 어디서나 보이는 언덕, 누구나 뜨거운 심장으로 안고 사는 성스러운 이 언덕으로 꽃길은 4월을 맞으며 매일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을 참배하고 인사드리고 있다.

우리의 언덕,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천만자식들을 여섯 오라 손이 어루스리는 것만 같고 광명한

미래에도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만 같아 만수무근 언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하루도 멈출 수 없으며 하루하루를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을 찾아 활기찬 봄을 느끼고 주변봉사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하는 창신중앙공업사업소 일꾼들과 총원들, 평양야외배회장의 봉사자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수도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위대한 수령님들을 전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광신과 뜨거운 자성을 바쳐가는 사람들과는 오랜 세월 만경대평화를 정히 머가지고 만수무근 언덕에 올랐을 때 감동과 감격의 눈물로 눈물겨워 울고 있는 이력사의 언덕으로 꽃길은 4월을 맞으며 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마음은 조국방방방곡곡에도 넘쳐나고 있다.

새 조국건설시기를 맞이하는 이력사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자강도는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함께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함께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꽃길은 4월을 맞으며 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마음은 조국방방방곡곡에도 넘쳐나고 있다.

새 조국건설시기를 맞이하는 이력사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자강도는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함께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꽃길은 4월을 맞으며 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마음은 조국방방방곡곡에도 넘쳐나고 있다.

새 조국건설시기를 맞이하는 이력사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자강도는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함께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꽃길은 4월을 맞으며 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마음은 조국방방방곡곡에도 넘쳐나고 있다.

새 조국건설시기를 맞이하는 이력사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자강도는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함께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꽃길은 4월을 맞으며 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마음은 조국방방방곡곡에도 넘쳐나고 있다.

새 조국건설시기를 맞이하는 이력사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자강도는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과 함께 이 땅의 정령과 강령이 되리라 믿어진다.

잇을 수 없는 이야기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바쳐진 휴식

꽃길은 4월 개학을 맞은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로 간다. 한껏 그늘도 없이 새 교복에 새 가방을 매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생각도 깊어진다. 이 땅에 세겨진 전설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주체52(1963)년 겨울 어느날 평양시내의 정지위원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들 머피라도 휴식하실 것을 절정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도 이번엔 거절할 수 없으셨다. 하여 황해북도로 내려가시면

엄마편 평양에 1백화점을 찾았던 우리는 신발매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모양과 색깔이 고은 신발들이 그득이 쌓여있는 진열대에 우뚝 서있는 수령님의 발걸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주체67(1978)년 여름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내의 한 일꾼에게 전화로 거시었다.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양시내에서 사는 사당거리의 최정환이란 새 아들이!

꽃길은 4월 개학을 맞은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로 간다. 한껏 그늘도 없이 새 교복에 새 가방을 매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생각도 깊어진다. 이 땅에 세겨진 전설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주체52(1963)년 겨울 어느날 평양시내의 정지위원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들 머피라도 휴식하실 것을 절정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도 이번엔 거절할 수 없으셨다. 하여 황해북도로 내려가시면

엄마편 평양에 1백화점을 찾았던 우리는 신발매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모양과 색깔이 고은 신발들이 그득이 쌓여있는 진열대에 우뚝 서있는 수령님의 발걸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주체67(1978)년 여름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내의 한 일꾼에게 전화로 거시었다.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양시내에서 사는 사당거리의 최정환이란 새 아들이!

꽃길은 4월 개학을 맞은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로 간다. 한껏 그늘도 없이 새 교복에 새 가방을 매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생각도 깊어진다. 이 땅에 세겨진 전설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주체52(1963)년 겨울 어느날 평양시내의 정지위원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들 머피라도 휴식하실 것을 절정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도 이번엔 거절할 수 없으셨다. 하여 황해북도로 내려가시면

엄마편 평양에 1백화점을 찾았던 우리는 신발매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모양과 색깔이 고은 신발들이 그득이 쌓여있는 진열대에 우뚝 서있는 수령님의 발걸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주체67(1978)년 여름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내의 한 일꾼에게 전화로 거시었다.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양시내에서 사는 사당거리의 최정환이란 새 아들이!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몸소 잡아주신 첫 대학의 러전

온갖 꽃이 만발하는 화창한 4월 봄날이 되었고 그리움의 대화가 흐른다.

우리의 만년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교사위원을 잡아주시기 위하여 고초를 겪어오셨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고 있다.

주체36(1947)년 4월 어느날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모형사안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니었다.

모형사안을 보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짓는 대학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위치는 풍기도 맑고 경지도 아름다울 때 동강기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좋겠다고, 대학 주변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알맞게 꾸려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이처럼 새 교사위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당자리를 직접 고르셨으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찾아보신 곳은 한두곳이 아니었다.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어느날 숲속을 헤쳐서 오던 산길을 밟아주시었다.

그리고 이 이름도 《인민대학습당》이라고 불소 지어주

명당을 정해주시었다.

바로 그 뜻깊은 자리에 세워진 우리 인민의 자애와 힘과 기쁨을 응징해 건설한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이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헌신속에 마련된 명당자리이다.

이렇듯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에 따라나서 평양의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인민, 그 부름과 더불어 빛나는 기념비적장소를 자랑스럽게 일떠세워 짓기였다.

본사기자 리남호

명당을 정해주시었다.

바로 그 뜻깊은 자리에 세워진 우리 인민의 자애와 힘과 기쁨을 응징해 건설한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이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헌신속에 마련된 명당자리이다.

이렇듯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에 따라나서 평양의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인민, 그 부름과 더불어 빛나는 기념비적장소를 자랑스럽게 일떠세워 짓기였다.

본사기자 리남호

수필 려명거리에서

려명거리를 바라볼수록 이렇듯 훌륭한 려명거리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나라의 평범한 인민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에 격정의 불을 달아준다.

인민의 거리!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진정한 인민들의 보금자리가 일떠세워졌...

《오늘 이 땅에서 일떠세워진 인민의 보금자리와 함께 우리는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위에 씨앗을 뿌리고 흠뻑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리남호

수필 려명거리에서

려명거리를 바라볼수록 이렇듯 훌륭한 려명거리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나라의 평범한 인민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에 격정의 불을 달아준다.

인민의 거리!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진정한 인민들의 보금자리가 일떠세워졌...

《오늘 이 땅에서 일떠세워진 인민의 보금자리와 함께 우리는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위에 씨앗을 뿌리고 흠뻑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리남호

수필 려명거리에서

려명거리를 바라볼수록 이렇듯 훌륭한 려명거리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나라의 평범한 인민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에 격정의 불을 달아준다.

인민의 거리!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진정한 인민들의 보금자리가 일떠세워졌...

《오늘 이 땅에서 일떠세워진 인민의 보금자리와 함께 우리는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위에 씨앗을 뿌리고 흠뻑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리남호

수필 려명거리에서

려명거리를 바라볼수록 이렇듯 훌륭한 려명거리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나라의 평범한 인민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에 격정의 불을 달아준다.

인민의 거리!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진정한 인민들의 보금자리가 일떠세워졌...

《오늘 이 땅에서 일떠세워진 인민의 보금자리와 함께 우리는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위에 씨앗을 뿌리고 흠뻑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리남호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신선학관 전시대에는 하나 둘씩이 자라났고, 이제는 유물이 되어버린 주인공의 주인공은 아마도 해방된 조선의 부활을 이룩하였으리라. 귀여운 자식의 출생을 두고 부모들은 도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나 인공이란 말조차 모르는 미제살인자들은 새 피어보지도 못한 작은 꽃망울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 아이 일파! 우리가 딛고선 이 땅속에 그 출생증의 주인의 유령이 울고있는지.

신선의 출생증은 주인을 잃었지만 이 땅에서는 새로운 복수자들이 자라났고, 이제는 빨갱이의 씨종자까지 말려죽었다고 하겠지만 보라, 신선 땅에서라도 얼마나 활활한 복수자의 대오가 자라났는지, 지금 이 단상! 신선의 출생증

이 시각도 수많은 새 세대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복수를 다짐하며 꽃다발을 얹고있다. 신선만이 아닌 이 땅에서 태어난 복수자들이 출태를 더욱 억세게 끌어잡고 최후결전의 날 인민의 활을 쓴 미제살인자들을 말

꽃길은 4월 개학을 맞은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로 간다. 한껏 그늘도 없이 새 교복에 새 가방을 매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생각도 깊어진다. 이 땅에 세겨진 전설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주체52(1963)년 겨울 어느날 평양시내의 정지위원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들 머피라도 휴식하실 것을 절정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도 이번엔 거절할 수 없으셨다. 하여 황해북도로 내려가시면

엄마편 평양에 1백화점을 찾았던 우리는 신발매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모양과 색깔이 고은 신발들이 그득이 쌓여있는 진열대에 우뚝 서있는 수령님의 발걸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주체67(1978)년 여름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내의 한 일꾼에게 전화로 거시었다.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양시내에서 사는 사당거리의 최정환이란 새 아들이!

대를 이어 복수 하리라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리옥희녀성의 체험담을 전하며

스케치마냥 내내였다. 의식을 잃은채 겨우 숨이 붙어있던 옥희가 인민군관들에게 의하여 구원된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후였다. 옥희는 마침내 군의소에서 소생하였다.

옥희는 옷도 잘 입고 눈물도 흐르던 소년였다. 그러나 미제아수들에게 두팔을 잃은 뒤의 옥희는 영 딴 아이가 되어버렸다. 두 손이 없어 생활의 순간순간마다에 당하게 되는 쓰라린 좌절감은 그 몸부림적인 그 몇몇이던가,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미제원수들의 총칼과 폭탄의 위협을 버리고는 미제원수들의 손아래서도 살아남아 버렸다.

미제원수들은 그러는 옥희의 어머니를 총칼로 때려 쓰러뜨리고는 옥희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였다. 옥희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였다. 옥희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였다.

꽃길은 4월 개학을 맞은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로 간다. 한껏 그늘도 없이 새 교복에 새 가방을 매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생각도 깊어진다. 이 땅에 세겨진 전설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주체52(1963)년 겨울 어느날 평양시내의 정지위원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들 머피라도 휴식하실 것을 절정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도 이번엔 거절할 수 없으셨다. 하여 황해북도로 내려가시면

엄마편 평양에 1백화점을 찾았던 우리는 신발매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모양과 색깔이 고은 신발들이 그득이 쌓여있는 진열대에 우뚝 서있는 수령님의 발걸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주체67(1978)년 여름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내의 한 일꾼에게 전화로 거시었다.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양시내에서 사는 사당거리의 최정환이란 새 아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해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뿔뿔히 찢어내려온 미제아수들을 천박바로 복수하고야말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신홍혁

이것이 반제계급교양관에서는 본사기자 신홍혁

이것이 반제계급교양관에서는 본사기자 신홍혁

이것이 반제계급교양관에서는 본사기자 신홍혁

력사에 길이 빛날 민족단합의 숭고한 모범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상, 사회단체대표자회담이 성대히 진행되고 있는 주체 37 (1994)년의 걸림돌을 머무르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삭막해지고 하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외세의 해국토벌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시기에 전민적적인 정치협상을 소집할 것을 몸소 맡기시고 그 실천을 위해 정력적인 평도의 자국을 세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오늘도 잊지 못하며 수령님을 헌정한 경도의 정을 닦아 성상하고 있다.

현실의 때가 가지는 역사적의는 결코 북과 남이 한자리에 모여있었다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권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협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단결하면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는 점에 남북조선의 두 가지가 가지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분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 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빼놓는 남조선의 의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양이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단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된 의의를 이룩하여 거룩한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불멸 애국력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남조선의 때가 가리던 시기로 말하면 미제의 불합리한 《단선단정》책동에 의하여 우리 조국에 민족분열의 검은 구

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던 때였다. 조성된 엄혹한 현실은 외세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열책동을 거부하기 위한 대책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족단합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족대단결사업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바나보다 넓은 도량과 천하를 끌어당기는 인력, 천리해인의 예지와 세련된 병도예술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었다.

그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함께 묶어 세의 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으며 그 실천을 위해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회담의 불을 소집하도록 하시었다.

그러나 남북조선의 때가 가리던 정치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던 때였다. 화성처럼 끓어오르던 남북조선의 유일정적력까지 남북조선에 국외로 몰려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당시 유일정적력에는 남북조선정치부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알려졌던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으며 미군정청 《과도법정의원》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인사도 있었다. 인성행로도 제각각이고 주의주정도 제나름이던 이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조선의 때가 가리던 시기로 말하면 미제는 민족의 평양방문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공갈과 리간책을 동원하였다. 그로 하여 현실의 소집에 대해 큰 관심을 표시하던 인사들까지도 회의의 성공에 대해 도리머리칠 지고 있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유일정적력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민족주의세력을 대담하게 포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었다. 지난 날 반공을 부르짖으며 민족앞에 지은 죄로 하여 민족대국의 길에 선뜻 발걸음을 들리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을 과전하시어 현실의방향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동포애의 정이 담긴 초대장까지 단정주시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고통과 외란된 요충을 닦아주시었고 또 다물어주시었다.

마침내 평양에서는 해방후 처음으로 사상과 리념, 정권과 신앙, 주의주장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으며 그 실천을 위해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회담의 불을 소집하도록 하시었다.

그러나 남북조선의 때가 가리던 정치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던 때였다. 화성처럼 끓어오르던 남북조선의 유일정적력까지 남북조선에 국외로 몰려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당시 유일정적력에는 남북조선정치부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알려졌던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으며 미군정청 《과도법정의원》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인사도 있었다. 인성행로도 제각각이고 주의주정도 제나름이던 이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조선의 때가 가리던 시기로 말하면 미제는 민족의 평양방문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공갈과 리간책을 동원하였다. 그로 하여 현실의 소집에 대해 큰 관심을 표시하던 인사들까지도 회의의 성공에 대해 도리머리칠 지고 있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유일정적력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민족주의세력을 대담하게

자멸을 재촉하는 <대북선제라격>기도

최근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선제라격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었다.

얼마전 수리아의 공군기지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미사일격을 단행하고 기고만장해진 미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보내는 《경고에세지》라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공갈하였다. 그것도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합민선》조전단을 조선반도수역으로 긴급출동시키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급속한 핵공격능력고도화를 막기 위해 《대북선제라격》양을 선제하였다는 여론이 돌출되어 온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의 불의적 위협공갈을 반대하여 주장하며 서는 민족이 서로 협조, 대화하고 평화, 연합하여 대한 민족대단결5대방향을 제시하시어 오로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불모를 더욱 풍부히 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업무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역사적인 4월남북조선회담의 69돌을 맞이한 지금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천을 위해 모든것을 다 하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정세는 엄혹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의연의 곁잡아있고있지만 우리 민족은 통일위업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사상도 평도도 풍도도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인 정경하는 최고평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되게 하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핵무산선제라격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 땅위에 구강인정하는 통일정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전민적적인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박 훈

최근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선제라격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었다. 얼마전 수리아의 공군기지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미사일격을 단행하고 기고만장해진 미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보내는 《경고에세지》라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공갈하였다. 그것도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합민선》조전단을 조선반도수역으로 긴급출동시키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급속한 핵공격능력고도화를 막기 위해 《대북선제라격》양을 선제하였다는 여론이 돌출되어 온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의 불의적 위협공갈을 반대하여 주장하며 서는 민족이 서로 협조, 대화하고 평화, 연합하여 대한 민족대단결5대방향을 제시하시어 오로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불모를 더욱 풍부히 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업무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역사적인 4월남북조선회담의 69돌을 맞이한 지금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천을 위해 모든것을 다 하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정세는 엄혹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의연의 곁잡아있고있지만 우리 민족은 통일위업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사상도 평도도 풍도도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인 정경하는 최고평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되게 하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핵무산선제라격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 땅위에 구강인정하는 통일정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전민적적인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박 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을 즈음하여 제중조선인총연합회가 15일 중국 김일성종합학교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장 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를 드리는 대형구호가 걸려 있었다.

차상부 제중조선인총연합회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 지구위원회 및 지부대표,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관 일군들, 동북3성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지사 선원들, 김일성이 살고 있는 제중조선 등 여러 곳에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 김일성인민정부 의사당 공신 부주임, 김일성인민정부 부비서장을 비롯한 중국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김일성종합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한 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제중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보도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김일성동지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차상부부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의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애국애족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백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 겸 의장단하

백두의 선출위원을 보시어 민족의 존엄과 주체적인 국력의 만방에 높이 떨치시고 조국통일업무를 용감히 관철하시어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되게 하겠다.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가한 폭넓은 민족대단결 5대방향을 제시하시어 오로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불모를 더욱 풍부히 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업무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역사적의 때가 가리던 시기로 말하면 미제는 민족의 평양방문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공갈과 리간책을 동원하였다. 그로 하여 현실의 소집에 대해 큰 관심을 표시하던 인사들까지도 회의의 성공에 대해 도리머리칠 지고 있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유일정적력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민족주의세력을 대담하게

《꽃피는 4월의 봄》 음악회

미국 뉴욕에서 진행

《꽃피는 4월의 봄》음악회가 8일 미국 뉴욕의 머튼프렌드스클럽에서 진행되었다.

유연주제 우리 나라 삼일절로부 입국들과 가족들, 유연주제 모차, 딸라루지 등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침략자와 매국노들이 몰아오는 재난

남조선에서 미국과 피뢰태당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의 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미제침략군의 범죄적인 생화학실험이 다시금 드러나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유미러게회》의 추진을 위해 관원장비들을 부산항 8부두에 반입하였다는것을 공식발표하였다. 그러면 남조선 각계의 항거를 눈짓할 심산으로 관원장비들의 반입이 판지관 등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그것들을 《합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미제침략군이 추진하고있는 《유미러게회》이라는것이 북침을 위한 생화학실험을 위한것이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미국은 2013년 3월 《화학적 불확실향에세지》이라는 《유미러게회》의 목적은 남조선주민들이 생화학실험을 실행하는데 있으며 남조선의 풍산과 오산 등 미군지의 연구소들에서 진행되고있는 실험 대상을 판지관과 보름비누스군이라는것을 공개하였다.

미국이 《유미러게회》에 대해 그 《생화학실험에 대응하는 제게》라니, 《방어와 보호》를 위